

# '이학'의 사상적 면모 불교의 돈오·심성론 등 흡수해 출현

## <39> 송대 이학(理學家)들의 불교에 대한 비판과 흡수

송대는 표면적으로 불교와 유·도 양자가 완전한 병립을 이룬 시기였다. 실제적으로는 유가를 중심으로 불·도의 사상을 융합하는 시기였고, 그 융합의 결과가 바로 '이학(理學)'이다.

달리 말해 '이학'은 형식적으로 유가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그 사상은 바로 철저하게 삼교가 융합한 것이다. 또한 '이학'이 공개적으로는 불·도를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이학'이 불교의 사상을 흡수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중국불교의 전개가 초기 전래로부터 유·도 양자와의 끊임없는 교섭으로 이미 유가에 깊숙이 불교의 사상이 개입되어 유가만의 독자적인 사상적 정체성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학'에서 비판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불교는 '출세'를 제창하니 유가에서 중시하는 '입세

있다. '이학'이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이치는 하나이지만 나뉘어 달라짐(理一分殊)'이다.

그런데 중국사상사에서 '이치'를 이른바 '지존(至尊)'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는 바로 남부조 시기의 도생 스님(道生: 약372-434)이다.

이른바 '일천제성부론'과 '돈오(頓悟)' 사상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유명한 도생 스님의 사상적 핵심은 바로 '이치'에 있다. 스님은 제불여래가 바로 '이치'로부터 '연(緣)'하여 출현했고, '부처'는 바로 '이치를 깨달은 당체(悟理之體)'라고 규정했다.

스님은 나아가 '돈오'를 제창하는 근거로서 '이치'의 '나뉘 수 없는 성품[不可分性]'을 들고 있다. 이로부터 도생 스님의 '이치'에 대한 극도의 중시가 엿보인다. 또한 스님은 "이치는 바로 항상 하나다. 마치 구름과 비는 하나이지만 초목은 여러 가지로

### 불교의 기본정신인 '출세간'의 틀 비판

### 당시 유행하던 선학적 방법으로 수양 채택

(入世)에 입각한 강상명교(綱常名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측면이다. '이학'의 기초를 다진 이징(二程: 程顥, 程頤 형제)은 "불교는 윤리의 가르침을 끊으며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도리를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불교가 사라져야 비로소 천하가 다스려진다."(<이징유서(二程遺書) 권2)라고 했다. '이학'을 집성한 주희(朱熹)는 극단적으로 "불교의 학을 깊이 논할 필요도 없이 다만 삼강오상(三綱五常)을 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극대한 죄명으로, 그 나머지는 다시 설할 게 없다."(<주자어류(朱子語類) 권126)라고 했다.

이러한 비판이 송대에 처음 나타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에 따라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 중국불교인들은 이를 희석시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당(唐)대로부터 사상적으로 불교와 유학을 융합한 경우가 상당히 출현했다. 송대에 있어서는 이미 사상적으로 완벽하게 일치시켰지만, 불교의 기본적인 정신인 '출세'의 틀은 남아있기에 이러한 비판이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학'의 사상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불교의 사상을 흡수해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송대에 출현한 '이학'이 불교로부터 흡수한 사상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세 측면으로 정리된다. '이학'은 '이치(理)'에 대한 '학(學)'이라고 할 수

다름과 같고, 초목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여겨 비와 구름이 그러하겠는가?(<법화경소>)라고 명확하게 설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사상적 연원을 분명히 엿볼 수 있다.

도생 스님이 '이치'를 중심으로 '돈오' 사상을 전개한 이후, 중국불교의 모든 종파에서 돈오론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도생 스님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이가 바로 화엄종의 제4조인 징관(澄觀: 738-839) 스님이다.

스님은 "나뉘 수(分數)는 무수히 많지만, 이치(理)는 나뉘 수 없어 일분(一分)이라고 칭한다"(<대방광불화엄경소> 권13, "하나의 이치로서 그를 꿰뚫는 것이 없다면 곧 후익(感業)이 여러 가지로 차별된다"(<화엄경소소연의초> 권29)라고 해 도생 스님의 '돈오론'을 인용했다. 또한 송대 조사선에 이르러서는 '돈오론'을 바탕으로 화엄의 이른바 '이사원융(理事圓融)'을 수용했다.

예를 들어 법안문의(法眼文義) 선사는 "이사(理事)가 둘이 아니고, 원융에 그 귀함이 있음이다."라고 하여 "이치는 돈오를 밝힘이요, 현상(事)은 모름지기 점수(漸修)이다."(<중문심규문>)라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 불교의 '이치'에 대한 사상은 그대로 '이학'의 핵심적인 '이일분수'의 명제에 흡수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림 · 김홍인

이정은 "천하는 다만 하나의 이치"이며, "일물(一物)의 이치는 바로 만물의 이치"(<이징유서> 권2)로서 "모든 이치는 하나의 이치로 돌아옴"(권18)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희도 이정의 논리에 긍정하며 "이천(伊川: 程頤)이 말하는 것이 옳다. 이치는 하나지만 나뉘어 달라짐(理一分殊)으로 천지만물이 비추면 하나의 이치인 것"(<주자어류> 권1)이라고 말한다. 지면관계상 다양한 이학자들의 사상과 불교의 관계를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학'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명확하게 불교로부터

연원했다고 하겠다. 또한 그에 따라 그 외의 전체적인 사상적 틀에 있어서 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쉽게 짐작된다. '이학'에서 불교의 사상을 흡수한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인성(人性)·심성론(心性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맹자의 인성론과 심성론(성선(性善)론)을 표방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는 불교의 '불성론'을 원용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중국불교의 '불성론' 형성은 바로 유가의 인성론의 영향으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불교에는 이미 부파(部派)시대 이래로 '인성'과 '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체계적인 확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불교의 불성론은 오히려 전체적인 중국사상의 인성·심성론을 이끌게 됐다. 따라서 '이학'에서는 남부조, 수·당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불교의 불성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인성·심성론을 보다 치밀하게 발전시켰다. 불교의 불성론은 이른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음'으로부터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래장자성정심(如來藏自性清淨心)'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규봉종필(圭峯宗弼) 선사의 <원인론(原人論)>에서는 "모든 유정(有情)은 본각(本覺)의 마음

을 갖고 있어 무시이래로 항상 청정하며 밝아서 어리석지 않으며, 분명하게 항상 알고 있어 불성이라고 하며 또한 여래장이라고 한다. 무시부터 망상(妄想)이 그를 가려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다만 법부의 자질만을 알기 때문에 탐착하고 업을 지어서 생사의 괴로움을 받는다"고 한다. 이와 주희의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신명한데, 무슨 까닭으로 밝지 못한가? 기품(氣質)이 치우쳐 있고, 또한 물욕(物慾)에 혼란되기 때문이다"(<주자어류> 권3), "이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신명스러우며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 사사물물을 모두 알지만, 사람들의 기질(氣質)이 치우쳐 있고, 물욕에 가리기 때문에 혼미하여 알지 못한다"(권48) 등과 같은 말과 비교한다면 명확하게 불교의 불성론과 '이학'의 '심성론'의 관계가 짐작된다. 실제로 다양한 이학자들의 심성·인성론을 중국불교의 다양한 불성론의 전개와 대비해 고찰한다면 용어의 차이만을 보일뿐 그 사상적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이학'에서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인 세 번째 측면은 바로 '수양론'이다. '이학'의 수양과 불교의 수행은 그 목적과 의의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이학자들의 비판처럼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성불'하는 이른바 '출세'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불국도의 완성'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 '이학'은 철저하게 '입세'에 그 뜻을 두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양의 방법은 역시 대체적으로 불교의 수행론을 원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학'에서 채택한 수양방법은 당시에 유행했던 선학(禪學)적 방법을 주로 채택했다. 이것은 불교의 제정체 삼학 가운데 정학을 특히 중시해 "배우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마음의 뜻을 한결 같이 하는 데 있다. 그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는 마땅히 좌선(坐禪)하여 입정(入定)하라"(<이징유서> 권18)고 했다.

이러한 이정의 수양론은 주희가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이정 문하의 뛰어난 제자들, 사상체(謝上蔡), 유정부(游定夫), 양귀산(楊龜山) 등은 점차 모두 선학에 들어갔다"(<주자어류> 권101)고 비판했다. 하지만 주희 역시 수양론에 있어서는 조사선의 방법론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주희는 "정(靜)에서의 체(體)는 대체(大體)가 아직 발하지 아니한 때에 기상(氣象)이 분명함을 아는 것이다"(권102)라는 것은 조사선의 '반관심원(返觀心源)', '직지인심(直指人心)' 등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주희가 제창한 '천리를 보존하고, 인간의 욕심을 멸하라(存天理, 滅人欲)'는 방법은 그대로 '번뇌를 떠나 진여본성을 현현'시키는 선학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명·청대의 사상가들이 주희의 사상을 불교의 다른 학설로 평가했던 것이다.(계속)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1357-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중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취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 맞춤형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희 박사 직접지도

-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취득 / 최면지도사
-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면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포리비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뇌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족,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코리아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코리아.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